



전남새마을회 해양쓰레기 제로화 결의대회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5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



두암3동 '사랑애(愛) 김장김치 나눔'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옥자)를 비롯한 자생단체협의회(회장 임순환)...



영산강유역환경청 '섬진강 홍보대사'에 김용택씨 위촉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진도 솔비치리조트에서 섬진강 시인 김용택씨를 '섬진강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광주대 '서(書)로 나눔' 아동센터 도서 기증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은 5일 광주 지혜의 다락방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서(書)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아동 도서 200여권을 기증했다.



제16회 광양시장애인체육대회

광양시장애인체육회는 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6회 광양시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함평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앞장

스쿨존 교통환경 개선

함평경찰서(서장 류미진)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팔을 걷었다. 5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인 점검·시설개선 등의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재·부품산업 육성 지금이 적기”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

경쟁력 강화 주도권·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중소·중견기업 전문기업화 무엇보다 중요

“일본 수출규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에 장기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한 '2019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이후 체계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5위 수준의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자급률 제고 전략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재편되고 있어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 내 주도권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측면에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간 기술획득의 어려움, 빈약한 시장 규모에 따른 투자 미흡, 경로의존적 경향 등으로 인해 소홀했던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제조업 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첨단 소재와 부품은 부가가치 제고, 질적 양적 성장 견인 등 제조업의 새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며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중소·중견기업의 전문 기업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치 제고, 질적 양적 성장 견인 등 제조업의 새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며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중소·중견기업의 전문 기업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

장했다. 소재·부품 산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소재·부품 산업은 장기기간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개발 성공시 장기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며 “특히 첨단 소재의 경우 투자 회임기간이 상당히 긴 편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협업체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경쟁의 기준이 개별기업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밸류체인 경쟁력 관점에서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일방적·시혜적 지원 관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체제에 기반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고 공정경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전남정책포럼 '스마트팩토리' 세미나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사장 김덕모)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스마트팩토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스마트팩토리 도입회사 및 공급회사·대학이 참여해 지역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호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나정승 교수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이형근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우순과 ▲광주테크노파크 김성환 센터장 ▲DK주식회사 이종환 차장 ▲가야산업연구소 장홍수 소장 ▲광주장조경제혁신센터 박군석 전문위원 ▲뉴비전 김수동 대표 등 지역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설계·개발·제조·유통 등의 전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과 품질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김종찬 기자



광주 아너 회원들 '12월의 산타' 됐다

무등육아원에서 아이들에 선물 전달 광주 아너 회원들이 12월의 산타가 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아너 회원 12명이 5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무등육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제길 광주아너소사이터 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시간이니”며 “아이들에게 매우 뜻깊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요셉 광주아동복지회회장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광주 아너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김종찬 기자

보훈복지문화대학 광주캠퍼스 졸업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는 지난 4일 광주보훈회관에서 2019학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광주캠퍼스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일용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및 보훈단체장과 졸업생 44명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보훈복지문화대학은 매년 상이군경회원 및 자매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1년간 나라사랑, 이웃사랑, 자아실현을 견학 이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광주대 총무처 조인우씨 광주시장 표창

광주대학교 총무처 조인우 팀원이 '2019년 소방안전관리 업무' 유공자로 광주광역시 표창을 받았다. 조인우씨는 학교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로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실시 및 홍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 등을 통해 화재예방과 생활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기철 기자

Advertisement for '전매게시판' (Public Notice Boar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legal aid, counseling, and support for various groups.